

철학사

61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이번 주에는 화이트헤드, 과정철학, 그리고 과정신학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슈툼프가 같은 장에서 다루는 두 명의 과정철학자, 베르그송과 화이트헤드 때문입니다. 제가 화이트헤드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과정신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화이트헤드에게서 과정신학의 시작을 살펴보고, 나중에는 그 심화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중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단연 화이트헤드입니다. 당신은 아직 화이트헤드를 읽어보지도 않았군요. 스티븐스가 화이트헤드를 소개하는 장조차 읽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수학자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런던 대학교에서 과학 철학자가 되었죠. 그리고 63세에 은퇴를 생각하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가 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15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퇴한 후에도 그는 하버드 야드 바로 옆에서 계속 살았고,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와의 대화는 그가 88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1859년에 태어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겔의 철학인데, 저는 이것을 헤겔의 진화적 이상주의라고 부릅니다. 헤겔의 이상주의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진화론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역사적 발전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지난주 방학 전에 이야기했던 19세기 관념론자들과 그 후계자들은 진화론적 관념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화론, 자연선택론, 또는 진화론의 다양한 형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학적 자연주의자나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따르면 진화론은 자연주의와 양립 가능하고, 이상주의와도 양립 가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근본적인 실재는 정신의 본질, 헤겔의 경우 절대 정신에 있지만, 그 비물질적이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정신이 자연 현상, 인간 존재,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정도로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 과정, 즉 생물학적 진화, 문화적 진화, 전반적인 진화 과정은 절대적인 것의 변증법적 전개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의 자유가 단순히 암묵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따라서 문화 속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정신이 자기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진화 과정이 도달하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화론적 사고는 이상주의적 맥락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식이 핵심이자 기본 모델입니다. 이 펼쳐지는 자기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의식의 발달은 실체가 아닙니다. 헤겔은 정신을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창조적인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정신은 실체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재 개념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탈리우스의 물이든,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사물이든, 어떤 근본적인 것들의 불변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불변하는 실체에서, 헤겔의 경우처럼 전체적인 로고스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불변하는 실체는 없는 일종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과정의 구조이지, 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겔의 이러한 관점이 화이트헤드의 '과정'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헤겔처럼 화이트헤드도 과정에 대한 현상학을 연구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의 현상학입니다. 의식 과정이 어떤 모습인지, 그 과정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18세기 과학에서처럼 기계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것과 도 본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의미에서 원자론적이지 않습니다 .

하지만 그 구성 요소들은 개별 원자라기보다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실체는 그 어떤 것보다도 관계의 단위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화론적 이상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화이트헤드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상 주의 만 빼고요 . 화이트헤드는 이것을 자연주의적 형이상학으로 옮겨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화론적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진화론적 자연주의자가 될 것이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선언한다. 그의 생애 말년에 신이라는 개념이 그의 생각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때 그의 생각이 바뀔지는 또 다른 문제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형이상학을 발전시키려 했던 의도는 진화론적 자연주의였습니다. 사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헤겔 사상은 F.H. 브래들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에 빠지고 안 들어온 사람들은 영원히 손해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F.H. 브래들리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화이트헤드가 헤겔이 아닌 브래들리를 명시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가드너 선집에 실린 브래들리의 자료를 보면, 브래들리는 현상과 속성, 실체와 속성의 구별 등을 순전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화이트헤드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브래들리의 선집에 나오는, 현상의 세계는 구체적인 현실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화이트헤드는 동의한다는 거죠. 그가 이상주의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바로 브래들리의 이상주의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가 맞게 될 겁니다. 브래들리는 존 로크에게서 비롯된 고전적 경험주의가 1차적-2차적 속성 구분과 같은 온갖 잘못된 추상화에 빠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브래들리조차도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며 실제 경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체의 질적 구별. 음, 제 생각에는 버클리도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임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오직 질적 속성뿐이라면,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무언가'이지 '무엇'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다. 시공간 구분.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추상적인 개념이 됩니다. 표상적 지식, 즉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추상성.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추상적인 개념을 꿰뚫어 봅니다. 브래들리가 현상의 세계에 다양한 정도의 현실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화이트헤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나타나는 정도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의 점진주의를 살펴볼 때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사물의 기본적인 본질이 존재의 위계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19세기의 진화론적 이상주의에는 헤겔에게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따로 떼어내어 지적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19세기의 낭만주의입니다. 화이트헤드가 이 특징을 헤겔에게서보다는 위즈워스에게서 더 많이 물려받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한때 워즈워스의 시를 마치 성경처럼 읽었다고 썼습니다. 워즈워스의 시를 성경처럼 읽었다니요. 그녀는 나중에 성공회 성직자와 결혼했으니, 아마도 그 말에 일리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워즈워스의 주제는 그의 저서 전체에 걸쳐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과 근대 세계의 낭만주의적 반동'이라는 장에서 그러한 주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장에는 철학만큼이나 시적인 표현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워즈워스의 시 또한 등장합니다. 그는 기계론적 과학과 계몽주의의 합리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적 반동의 철학적 내용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건 19세기 이상주의의 일부인데, 화이트헤드가 그걸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꽤 명확 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화이트헤드의 시와, 제가 화이트헤드의 시라고 했었나요? 워즈워스의 시에서, 그리고 화이트헤드가 실제로 쓴 형이상학에 관한 그의 방대한 전문 서적인 '프로세스 인 리얼리티'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을 발견했습니다 .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화이트헤드를 제대로 읽고 싶다면 워즈워스의 시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영향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현대 과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원래 수학자이자 과학자였으니까요.

그는 1903년쯤 버트런드 러셀과 함께 기호 논리학을 20세기에 소개한 작품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그 작품은 《트락타테》(Tractate)라고 불립니다. 아, 버트런드 러셀이요? 아니, 《트락타테》가 아니라, 저를 이 길로 이끈 건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Principia Mathematica)입니다.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 보시다시피, 여기 프롬프터가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 수학의 원리.

당시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치던 러셀과 화이트헤드는 이 책을 공동 집필하여 수학적 형식 논리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형식 논리에 수학적 기호를 도입하여 변수의 모호성을 없애고 논리학자들이 선호하는 형식화된 연역 체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원래 수학자였는데, 당대의 다른 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논리학, 나아가 과학철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과학철학을 가르치던 시절, 그는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 세 권의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론 물리학이 과학철학과 접하는 영역에 관한 논문들이었죠 .

네, 그는 이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철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틀림없이 발생생물학입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진화론, 미시적 차원에서는 유전학이 그렇습니다.

발생생물학. 그는 물리학에 비해 발생생물학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리학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 『현대 세계의 과학』에서 그는 물리학의 세 가지 현대적 발전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전자기장 이론입니다. 전자기장 이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중력을 가진 물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힘의 장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힘의 장. 둘째, 양자 물리학.

기본 단위가 고체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에너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양자 물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간 상대성을 포함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즉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E 는 mc^2 과 같습니다. 상대성 이론이죠. 제가 대학원에서 수강했던 화이트헤드 강의를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상대성 이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단 두 명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이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으세요? 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걸 자신의 형이상학에 접목시키고 있어요.

놀랍군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그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자연주의자입니다.

여기서 그는 현대 물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는 현대 과학에 관심을 가진 자연주의자로서 과학적 실재론자가 되려 한다. 과학을 현실에 대해 잠정적인 방식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상주의자는 과학을 현상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화이트헤드는 과학을 실재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삶과 자연에 대한 낭만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실과 가치 사이에 궁극적인 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는 가치 지향적 입니다 .

이상주의자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현실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현실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현대 과학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는 발생생물학과 에너지 물리학,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일상의 물리적 사실들이 가치, 의미, 그리고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그는 과학적 우주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철학적 자연주의자가 있는데, 그는 사물에 내재된 도덕적, 미적 가치를 발견할 겁니다. 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과학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철학이 과학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나는 과학적 추상화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추상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평등과 같은 이론적 개념을 궁극적인 실재로 받아들이는 추상화 말입니다.

잘못된 추상화입니다. 그러한 추상화를 비판하는 것이 철학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계론적 과학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의 첫 여섯 장의 주요 기능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은 저자가 현대 과학에 기반하여 '추측적 상상력의 비행'이라고 부르는 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학에서 추론하여 사변적인 형이상학적 체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사변적 상상력의 비행을 1920년대 비행기 여행에 비유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즉, 구름 위, 상상의 나래로 가득 찬 황홀한 세계를 떠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주기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 구름 아래로 내려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그의 말이 맞다면, 그는 레이더 점검 같은 걸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말해, 철학적 사변, 형이상학적 사변이지만, 항상 과학적 사실과 일상 경험, 즉 구체적인 경험에서 출발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두 가지 종류의 경험적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과학과 구체적인 경험이죠.

로크 같은 경험주의자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성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경험의 종류입니다. 자기의식은 현실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자기의식적인 내성.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그는 항상 특정 오류들을 비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성의 오류 같은 것이죠.

어휴, 철자도 제대로 못 쓰네. 좋아. 구체성의 오류와 단순 위치의 오류.

구체적인 것이 추상적인 것의 반대라면, 구체성을 잘못 적용하는 오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순수한 추상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구체성을 잘못 적용하는 오류는 추상적인 것을 실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입니다.

지적인 추상, 이론적인 추상이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체성을 잘못 적용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계론적 과학을 그런 오류로 비난하죠. 또 다른 하나는 단순 위치의 오류입니다. 뉴턴 역학처럼 균일한 공간과 균일한 시간 속에 고정된 지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오류 말입니다.

간단한 위치 파악이죠. 좌표만 알려주면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임은 공간과 시간 모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죠.

그리고 공간 좌표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상대성 이론이죠. 시간과 공간의 관계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리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위치라는 개념은 어떤 수준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다른 수준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의 영향입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알렉산드리아 교부들 말입니다. 철학적 자연주의자가 왜 알렉산드리아 교부들과 거래를 하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그는 그들의 라고스 교리를 사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라고스 독트린을 사고 싶어합니다. 그는 플라톤주의, 특히 중기 플라톤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플라톤 한 사람만이 아니라 , 플라톤주의 중기에 이르러 자연의 질서정연한 구조에 대한 라고스 개념을 발전시킨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 하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 가야 합니다 .

우선, 헤겔주의자가 후대의 모든 철학을 헤겔에 대한 일련의 각주라고 말하듯이, 화이트헤드는 철학의 역사 전체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헤겔에게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자연의 과정이 기본적으로 창조적인 정신의 본성과 같지만 , 그 과정에는 변증법적 라고스 구조가 있다는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목사관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남동부 램스게이트라는 마을에서 복음주의 성향의 성공회 목사였는데, 그곳은 제 집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램스게이트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

그리고 저는 그가 다녔던 교회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려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학부생으로 케임브리지에 갔을 때, 한동안 신학을 열심히 읽었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살 수 없었다. 신학 서적을 모두 팔고 수학으로 관심을 돌렸으며, 버트런드 러셀과 함께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1930 년대에 출판된 그의 후기 저서 중 하나인 《이념의 모험》에서 그는 신학, 특히 오리겐과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플라톤주의자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분명히 드러낸다.

오리겐, 클레멘트, 그 전통. 중기 플라톤주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매력적인 것은 로고스 개념과 선한 신의 발출물 안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지만, 선한 신의 발출물 안에 있는 로고스 구조가 모든 유한한 현상으로 전이된다는 생각입니다. 스토아학과에서처럼 모든 개별적인 것에는 정자 로고스 , 즉 로고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 와 선함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신은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플라톤주의의 핵심 주제는 존재 자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치의 근거를 찾는 방법으로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로고스 구조 말이죠.

네, 그럼 이 세 가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의견, 질문, 그리고 명확히 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봄방학 후에 다시 제자리를 찾으셨나요? 잘 이해되셨나요? 네, 이 세 가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과제는 이 형이상학적 체계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경험과 현대 과학을 바탕으로 사변적 상상력을 통해 이 체계를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그는 관념론자라기보다는 자연주의자이지만, 19세기 관념론자들, 특히 낭만주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궁극적인 것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그는 궁극적 실재가 하나의 실재이고 다른 많은 실재도 존재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유신론자의 언어입니다. 궁극적인 실재는 신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위 실재들이 존재하죠.

그건 화이트헤드의 언어가 아닙니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궁극적인 현실이란 모든 것을 관통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궁극적인 현실이란, 놀랍게도 바로 창의성입니다.

당신은 그건 사물이 아니라 속성이라고 말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건 사물이 아니죠.

그의 창조성은 형이상학적인 실체가 아니며, 궁극적인 것을 사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창조성은 속성일까요? 아니, 정확히는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것은 새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새로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창의성, 새로움.

자, 조심하세요. 브래들리가 처음보다 신에 대한 개념을 훨씬 더 완전하게 발전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창조성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고요. 브래들리의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놀랄 일도 아니죠. 브래들리에게 있어서 절대자 역시 신이 아니니까요.

신은 절대자의 가장 고귀한 현현입니다. 그리고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신은 창조성의 가장 고귀한 현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화이트헤드의 신이 우리 기독교 전통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만약 신이 창조성의 최고 현현이라면, 그는 창조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궁극적인 존재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창조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창조성 전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창조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주의자들이 그러하듯이, 그들도 자기의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현실이라는 더 큰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내성적으로 인지하는 어떤 창조적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형적인 사례로 삼았던, 가장 간단한 출발점은 바로 감각 지각의 경험입니다.

감각 지각의 경험.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헤겔이 정신 현상학을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주관적인 정신.

감각. 그리고 지각. 그리고 그가 감각 지각 경험을 내성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만큼,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려는 것은 감각 지각에 대한 현상학적 설명이다.

헤겔처럼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상학적 방법이요. 그렇다면 헤겔은 감각 지각을 설명할 때 무엇을 할까요? 그는 지각 경험에서 세 가지 양식을 구분합니다.

지각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인과적 효능감에 기반한 지각이고, 두 번째는 표현적 즉각성에 기반한 지각입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 참조 양식에서의 지각입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이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항상 존 로크의 지각 이론과 대조합니다. 존 로크는 감각 지각을 설명하면서 무엇이 먼저 오는가? 인과적 효능인가, 아니면 관념인가? 로크의 현상학적 관점, 즉 의식적 관점에서 무엇이 먼저 오는가? 바로 관념입니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이죠.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는 그것을 '표현의 즉각성 우선이라는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오류라고 명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910년대와 20년대에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즉각성을 우선시하는 오류 같은 것이죠.

표현의 즉각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의식, 즉 인지 영역에 즉시 제시되는 아이디어 말입니다.

표현의 즉각성은 인지적 내용, 즉 아이디어입니다. 반면에 인과적 효능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지적 의식 이라기보다는 정서적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시각과 같은 감각 지각에서는 청각적 지각에서보다 덜 생생합니다. 청각적 지각의 경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나중에 그 소리가 무엇인지 해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촉각의 경우처럼, 인식이 더디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요점은 지각하는 주체를 전체적인 심신적 통합체, 즉 인간 유기체 전체로 간주한다면, 현상학적 관점에서,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인과적 효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과적인 효과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각 지각의 명확함에 현혹된 로크는 다른 말을 했다. 하지만 시각적 지각에서도 빛이 충분히 밝으면 먼저 느껴진다. 눈부신 빛 말이다.

그러니까, 인과적 효능이라는 방식에서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주목해 보세요. 존 로크에게서는 이 개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야기했을까요? 생각이라는 것, 즉 느낌이 아니라 생각인 그 관념에서, 우리가 그 관념을 생각하게 만든 원인에 이르기까지, 순전히 지적인 인과관계를 논해야 합니다 . 다시 말해, 관념은 표상입니다.

바라건대, 그것은 복제품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추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확실하네요. 따라서 이는 우리가 현실을 아는 것은 언제나 간접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인과적 효능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 인과적 효능의 경험 속에서는 원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언이 일어서 있는데 제가 그의 턱을 때린 다면 , 그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실재하는 대상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실재론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데이비드 흄은 우리가 단지 일정한 관계만을 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우리가 인과 관계를 경험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흄은 틀렸습니다. 흄은 표현의 즉각성이라는 오류에 걸려들었습니다. 저렇게 큰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가 그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로크식 사고방식에 너무 갇혀 있었습니다. 인과적 효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상수 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이언은 턱을 몇 번이나 맞아야 정신을 차릴까요? 아마 한 번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만큼 즉각적 이니까요. 그리고 그 즉각성은 연출상의 즉각성으로 이어집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옳다는 보장은 없죠. 다들 아시잖아요.

아침에 울리는 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알람시계를 잡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이디어는 하나 떠올랐군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자극은 여러분에게 가상의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물론 보장은 없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디어를 자극의 원인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재현이나 복제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는 이런 표현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로 브래들리에게서 배웠습니다.

브래들리는 전통적인 경험주의를 비판하면서 관념은 복제물이나 재현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관념은 우리가 사물에 대해 생각할 때 사용하는 상징입니다. 즉, 우리는 관념을 가져와서 그것을 지칭하는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의 본질에 대해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이란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존재란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다는 직접적인 인식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요소에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지, 또 다른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각 경험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각 경험을 만들어내는 원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객관적인 데이터, 즉 현재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백일몽은 이러한 인과적 전제들에 의해 방해받는다는 겁니다. 인과적 자극이란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둘째, 생각이 발전함에 따라, 이것들은 그가 영원한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한밤중 에 전화벨이 울리네 .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틀렸어.

알람시계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들은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죠.

당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가능성들. 그리고 지각 경험을 완성하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결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사를 건네고 나서야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결정이란, 자극이 제시하는 모든 가능성, 즉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경험을 통해 원하는 기호가 무엇인지, 어떤 기호가 효과적인지 알게 됩니다.

자, 제가 말했듯이 지각 경험은 그의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지각 경험이라는 사건 말이죠. 멋지네요.

그의 요점은 모든 경험, 모든 사건, 우주 전체의 과정 속에는 첫째로 인과적 효력, 즉 실제적인 인과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에 가능성으로 제시되는 생각들을 품는 과정 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이디어가 뭐예요? 가능성이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음, 제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능성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세요. 여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인과적 개입이 발생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과적 개입으로 인해 제시될 수 있는 온갖 영원한 가능성들이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한히 많은 가능성 중에서 이 특정한 상황 과 관련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가능성들을 고려했을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 1, 2, 3.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다양한 영원한 가능성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선택하여 전속력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적 과정의 모든 사건에는 항상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인과적 전제 . 내재된 가능성. 그렇다, 자연 과정은 좋은 나쁜든 , 가치 판단적 이든 수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네. 그러니까 객관적 인과관계가 주어졌고, 영원한 가능성이 있으며, 세 번째로 결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화이트헤드는 쉽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이트헤드의 기본적인 질문은 이 영원한 가능성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는 라고스 교리를 찾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 라고스입니다. 그런데 신은 어떤 의미에서도 창조주가 아닙니다. 신은 인과적인 힘이 아니죠.

질서를 세우는 자 , 섭리하는 자, 라고스일 뿐입니다 .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유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신론자일까요? 아닙니다. 이신론자는 창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신론자도 아니고, 이신론자도 아닙니다. 범신론자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고 존재인 신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화이트헤드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어떤 분류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요소가 그의 전체 형이상학적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단지 다른 사건들일 뿐입니다.

이 흐름의 현재 상태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공간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인과적 흐름이 교차합니다. 그는 이러한 영원한 가능성을 영원한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체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의 대상, 즉 관념으로서의 대상이다. 관념은 사유의 대상이며, 사고의 대상이다. 이것들은 영원한 대상이다.

그는 때때로 사건들을 실제 실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의 형이상학은 시공간적 과정을 구성하는 실제 실체들의 형이상학입니다. 여기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의 논리적 가능성인 영원한 대상들과 사물의 개별성을 설명하는 결정들이 포함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개별적인 인식, 특정한 인식으로 만드는 걸까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삶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흐름 속에는 결정, 결정, 결정,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언제나 그가 말하는 만족감을 가져다줍니다. 반드시 감정적인 만족감일 필요는 없지만, 원인이 되는 자극이 어떤 식으로든 자아에 흡수된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인 개성의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개별적인 요소들이 다른 개별적인 요소들과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개별적인 하위 과정들이 다른 개별적인 하위 과정들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연결 속에서 온갖 가능성, 창의적인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과정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에 의해 현실화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바로 하나의 패러다임이며, 바로 여기서 점진주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라는 영역에서는 의식적인 행위이고, 우리는 그 세 가지 모두를 의식하지만, 현실의 다른 차원에서는 의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의식적이지 않은, 즉 아무도 결정하지 않지만, 여러 사건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가능성이 확실해지는 경계선이 되는, 결정과 유사한 저차원적인 개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그 아름다운 날씨 덕분에 뒷마당 화단에 줄지어 심은 수선화, 아니, 튤립 구근들이 말 그대로 그만큼 높이 자랐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몇 주 일찍 화려한 색깔의 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가능성들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튤립이 자라는 과정에는 온갖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죠. 지난주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쳤고, 튤립이 얼어붙어 지금은 축 늘어져 죽어 땅에 쓰러져 있어요.

사실 가능성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혹독한 추위였다. 그렇게 내 봄 틀립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에는 영향을 미치는 온갖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는 달리 훨씬 더 결정론적입니다. 그는 틀립의 결정이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결정은 불확정적이었고 여러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게 바로 과정의 본질입니다.

시간이 초과 됐네요 .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